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 생활지침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아름답도다 주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롬10:15)

오늘 농촌전도단 · 선교여행단 파송식

농촌전도단이 오늘 찬양예배 시 파송식을 갖고 본격적인 전도활동에 돌입한다. 전도단은 7월 29일(화)부터 8월 1일(금)까지 3박 4일간 전북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신석교회에서 전도활동을 펴게 된다.

전도단은 축호전도,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개최 등으로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저녁에는 동네잔치와 전도집회도 열 예정이다. 또한 지역봉사와 의료 및 미용 등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편다.

농촌전도단은 지난 며칠간 전도훈련과 기도회 등을 통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새로이 하고 전도활동을 준비했다. 전도지를 마련하고 전도전략을 수립하는 등 전도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지역봉사팀은 지난 주간 현지에 가서 시설물을 보수하는 등 이미 봉사활동을 시작하여 복음을 뿌릴 터를 닦았다.

농촌전도단은 지도 김정현 목사, 단장 김태기 장로, 진행 이성득 · 이순환 · 박귀환 목사를 선두로 전도분과, 의료봉사분과, 미용봉사분과, 교육분과(성경학교 진행), 재정분과, 찬양분과 등으로 조직되어 분과별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7월 28일(월)부터 8월 5일(화)까지 파키스탄 복음화를 위한 선교여행단의 파송식도 오늘 찬양예배 시에 가진다.

선교단은 파키스탄을 방문해 그곳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제 6차 김치(KIMCHI)신학세미나에 참가했던 파키스탄의 김치 동문들의 활동을 활성화하며 한인교회, 난민구호기관, 선한 사마리아병원 현장 등을 돌아보게 된다.

또한 선교여행단은 우리 교회가 지난 해 중앙아시아로 파송한 박종상 선교사의 활동보고를 듣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번 선교여행단의 구성원은 이종윤 목사를 비롯하여 오정수 · 노문환 · 홍정호 · 이영기 장로이다.

◇ **신석교회** = 전도단이 파송될 전북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에는 현재 120가구 300여 주민이 살고 있다. 신석교회에는 현재 장년 35명, 중고등학생이 8명, 어린이 10명이 출석한다. 지도 교역자는 김진수 목사라 가족으

로는 사모와 2남(22세, 20세)이 있다. 신석교회는 우리 교회 농어촌 100교회 지원운동의 대상교회로 루디아 제 1전도회와 자매결연한 교회이다.

◇ **파키스탄** = 국민 141,599,000명(1995년 현재) 중 96%가 회교도인 회교국가. 기독교인은 2% 남짓에 불과하다. 회교 극단주의자들의 종교탄압이 심한 가운데 1974년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 난민의 유입, 회교 무장 게릴라 운동의 성장 등으로 파키스탄 내부의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다.

농촌전도단을 위한 기도

1. 전북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주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전도활동이 되게 하옵소서.
2. 동네 전체에 가득찬 우상의 세력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3. 지역교회들이 화평을 이루어 마을에 덕을 세우게 하옵소서.
4. 지쳐있는 신석교회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생동감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5. 전도대원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하게 하옵소서.
6. 농촌 전도단원들의 활동을 마친 이후에 오직 하나님의 존귀하심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7. 복음전파 사업에 온 교회가 기도로 후원하게 하옵소서.

중등부수련회 내일부터

(수)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개최한다. 수련회장으로의 출발은 당일 9시 30분에 교회에서 한다. 그밖에도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수련회가 8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각 부서 여름행사 활발



교회학교들은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령별 특성에 따른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별히 십계명에 관해 배우고 익히고 있다.

지난 17일유치부 성경학교를 필두로 교회학교와 각 부서의 여름행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1일과 22일에는 유년부와 초등부의 성경학교가 개최됐다. 또 24일(목)에는 사랑부도 성경학교를 개최했다.

이번 주에는 중등부가 화천의 평안기도원에서 28일(월) ~ 30일

강해설교 여호수아서

1장 10~18절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여호수아가 또 브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와 중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족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와 중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법사에 모세를 청중할 것같이 당신을 청중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이종운 목사

여호수아의 지도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주셨습니다(6, 7, 9절).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했습니다(18절).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동시에 백성으로부터도 존경과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은 지도자가 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1. 그는 과거가 신실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출애굽기에 나타나서 민수기와 신명기에 27회나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수아는 모범적 인물로 묘사되어 그의 신실성을 보여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 사막을 지난 후 첫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출17:8-16).

그리고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다른 열 정탐꾼과는 달리 모세에게 “젓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믿음으로 보고했습니다(민13:1-33).

또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신31:23, 34:9).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그의 과거 역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을 지도하기에 필요한 자질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맛보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말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지혜와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그에게는 특별한 소명감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특별한 소명감이 있었습니다.

“내 중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수1:2-6).

28년 후 20세 된 이들은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 거민의 강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같이 정탐하러 갔던 나머지 열명의 보고가 인간적으로 보면 옳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인간의 눈으로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심을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려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 그에게 과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것을 믿고 그는 담대히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3. 그의 지도력은 객관성 있는 계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 표준으로 잘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참 부르심은 기록된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민수기 32장과 신명기 3장 18-20절에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여호수아 1장 13-15절에서 기억하고 자기의 부르심을 확증했습니다.

4. 그는 하나님 신앙이 확고했습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수1:5).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과 같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할 것임이니라 만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신31:6).

우리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눅9:23, 엡2:10). 여호수아에게 언약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히13:5, 6).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조국과 교회를 위해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신앙과 그의 간증과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요 간증이요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즐거운 여름성경학교 믿음의 동산

둘째날, 용산가족공원에서 천로역정을 했다. "고난의 길"은 정말 힘들었다.

풀밭을 구르며 오리걸음걸이를 했는데 참 어려웠다. 장로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난 힘들었지만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더운 날씨였지만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성경학교를 해서 좋았다.

- 이찬희 -

나는 그동안 학원의 수련회 같은 것이 주일에 가기 때문에 참석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항상 속상하고 아쉬웠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일입니다"라는 한마디는 지금까지 내 모습이 부끄럽게 생각됐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주일을 경건하게 지키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내 자신에게 그리고 누구에게라도 "주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기풍 목사님 일생을 담은 영화 감상. 처음에는 예수님을 폄박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는 예수님을 위해 폄박을 받다가 순교한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청팀과 홍팀으로 나누어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십계명을 외우게 되었다. 외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잘 지켜야한다는 것도 배우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

둘째날 천로역정. 마귀시험, 유희의 길을 거치고 풍선터뜨리기, 예담의 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친구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했다. 고난의 길을 지나 천국의 길에 이르니 선생님들이 금면류관을 씌워 주시고 맛있는 간식도 주셨다. 천국에 가기까지는 어려운 길이 있지만 잘 참고 이겨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 김보연 -

야호! 즐거운 여름성경학교다. 나는 찬양대라서 특별히 따로 앉게 되었다. 찬양대 하기를 참 ভাল 것 같다.

퍼즐게임을 했다. 제비뽑기를 해서 그 계명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퍼즐을 맞추는 것이었는데 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을 잘 지켜야한다는 생각을 했다.

천로역정에서 우리조는 '가족사랑'이라는

조 이름을 붙이고 천국에 가기 위해 내가 조장이 되어 당당히 나가 제일 먼저 금면류관을 받았다. 만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너무 기뻐다. 나는 벌써 겨울성경학교가 기다려진다. - 홍지형 -

유년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 "천로역정"



즐거운 여름성경학교가 열렸다. 초등부 어린이들과 함께 1층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종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했다. 그리고 주일은 거룩히 지키라고 가르쳐 주셨다. 선생님들께서는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꼭 지켜야 할 법이라고 하셨다.

둘째날 용산가족공원에서 우리는 서로 발을 닦아주기도 하고 마귀시험과 고난의 길을 지나

좁은 문을 거쳐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잔치가 벌어졌다. 그중에도 물풍선 터뜨리기는 더운 날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었다.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배우고 십계명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일에 예배 끝나고 놀러가기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주일을 잘 보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꼭 한 장씩 읽겠다. - 이주희 -

성경학교 기간 동안 십계명에 대해 배웠다. 말이 참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웠지만 여러가지 게임을 하면서 외우게 되었다.

매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을 잘 지키고 싶어도 내 속에서 자꾸 나쁜 마음이 들어서 지키기가 힘들지만 하나님 한테 기도를 해서 지혜를 얻어야겠다고 생각했다.

- 김현준 -

초등부

"십계명의 세계로 여행"



성경학교 첫 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어 행하는 자가 복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

오후 프로그램 중 십계명을 따라 지정된 방을 돌며 학습하는 시간에도 새로운 깨달음과 즐거움 속에서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저녁에 가진 고수부지에서의 시간들도 잊을 수 없다. 불꽃을 쏘아올려 하늘에 충충히 박힌

별빛에 더 많은 불빛을 수놓게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 너무나 아름답고 즐겁고 가슴이 벅찰 만큼 감사했다.

둘째날. 수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조건은 십계명을 모두 외워야 하는 것이었다. 쉽진 않았어도 보람있고 즐거웠다. 우리는 여름을 한껏 느낄 수 있었다. 좀 피곤하기도 했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나쁜 아나나 친구들 모두 만족한 얼굴이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익힐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 고아라 -



(4면에 계속)

즐거운 여름성경학교 믿음의 동산

(3면에서 계속)

목 사님께서 아주 큰 성경과 아주 조그만 성경을 보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소리든지 큰 소리든지 모두 지켜야 한다고 설교해주셨다. 또 학교 선생님께서 주일에 학교나오라고 하시면 “주일입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말씀에 나는 큰 용기를 얻었다.

‘십계명의 세계로 여행’이라는 순서가 있었다. 우리 조는 제 4계명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주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웠다. 제 5계명의 방에서는 부모님께 편지를 썼다. 제 6계명의 방에서는 사람을 해친 신문 기사를 오려내어 다시 우리들의 신문을 만들었다. 제 7계명의 방에서는 사춘기의 특성에 대해 배우고 간단한 성교육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잘 돌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제 8·9계명, 다시 제 1·2·3계명의 방을 돌면서 각각의 방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진 뒤 모두 모여 달란트 시장을 열었다. 외우는 것을 참 싫어하는 나도 둘째날 암송대회에 이르자 십계명이 절로 다 외워졌다. 모든 순서가 참 알차고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 임판자 -

초 등부학생으로서는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잘 참여해야겠다고 다짐했었다. 목사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이고 천국시민답게 사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모두 어울려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서로 협동하고 친교하는 시간이 참 귀하다고 생각됐다. 무엇보다 십계명을 다 암송하게 된 것을 감사드린다. 말씀을 따라 살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

녀답게 살 것을 다짐했다.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에서 배운 십계명을 생활화하도록 노력해야겠다. “예수님, 저는 계명을 꼭 지키겠습니다”
- 임종현 -

이 번 성경학교를 자체평가해 볼 때 감히 성공이라고 말하고 싶다. 거기엔 몇가지 비결이 있었다.

첫째, 기도와 간구. 교사들은 8주 전부터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으며 한 주 전에는 기도회를 가졌다. 온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 역시 큰 힘이 되었다.

둘째, 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수고. 성경학교 준비와 진행에 자원하는 도움의 손길들이 적재적소에 있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일관성 있었던 프로그램. 설교, 특강, 분반공부, 놀이와 상품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을 기억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다.

넷째, 한강시민공원과 서울랜드에서 가졌던 프로그램. 자연 속에서 찬양하며 전도하는 기회가 되었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돕고 교제하면서 말씀을 체험할 수 있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 최광혁(교사) -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7월 새가족을 환영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새가족은 인도자와 함께
예배 전, 환영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7월의 새가족 *

조경하 박정호 손정현 심상필 조영수
김남순 양옥순 김수현 박기홍 권기욱
이영종 조수옥 권지선 전수자 이병용
김청애 홍성원 김영숙 이관례 이선주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 순례자 컬럼 ✧

새로 태어나야 한다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죽은 자와 방불한 처지에서 안타까와하는 이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 영적 불모지로 알려졌던 공산국가들이나 사생아와 같은 모슬렘 국가에 사는 이들이 바로 그런 자유를 잃은 이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여 거듭나는 기적이 없이는 저들은 자기의 낡은 날까지 저주해야 되는 고통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아들처럼 기득권만 자랑하던 우리도 영적으로 새사람이 되도록 크게 변해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 완전히 변화된 새사람만이 아버지 집에서 참된 자유인으로 기쁨의 잔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정

- * 김상철 장로(임마누엘 찬양대장)는 26일(토) 도미 한미우호협회와 미의회안보회의재단이 공동주최하는 한미정책회의를 주재하고 필라델피아 등지에서 간중집회를 가진 뒤 8월 6일(수) 귀국한다.
- * 홍일성 · 이명아 집사(7교구)는 25일(금)일원동에 “콜롬보 아이스크림”을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 오늘 점심식사는 최재규 · 천정화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각 부서 여름행사가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2. 농촌전도단을 위해
3. 파키스탄 선교여행단과 박종상선교사의 사역을 위해
4. 새가족들의 신앙성장을 위해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